

진도군, 배움 농친
어르신 한글학교운영

진도군이 배움의 기회를 농친 어르신들을 위한 군민한글학교를 올해로 8년째 운영하고 있다.

1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어르신 학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한글학교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제 8회 군민한글학교 백일장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군민한글학교 백일장 대회는 어르신 학생들이 그동안 배움의 열정을 글로 표현하고 공감하는 문화의 장이 되었다.

'추억'을 주제로 어르신 학생 500여명이 참석해 백일장의 열기가 붉게 물들어 가는 단풍처럼 아름다웠다.

군민한글학교는 어려운 가정 형편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쳐 평생을 까막 눈으로 살아온 어르신들을 위해 읍면 620여명의 어르신들이 학생으로 참여해 운영 중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신안군, 체류형 관광·휴양시설
지오국제문화관광타운 기공식

1단계 리조트 180실·호텔 218실 2020년 7월 완공



신안군은 5일 자은면 백길해수욕장 인근 '지오 국제문화관광타운' 특설무대에서 라마다 프라자 자은 호텔&리조트 기공식이 열리고 밝혔다.

지오 국제문화관광타운은 (주) 지오그룹이 시행을 맡고, 지오종합건설(주)에서 시공하여 서남권 최고의 체류형 관광·휴양시설을 갖추고 나아가 지역 산업발전을 선도적으로 추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고운 모래가 매력적인 백길 해수욕장(자은면 유각리)일대 8만여평의 부지에 1단계로 리조트 180실과 호텔 218실을 2020년 7월에 완공하고, 2단계로 리조트 220실과 레저스포츠·국제문화예술교류센터·공연장 등 각종 부대시설은 2,200여원을 투입하여 2022년 7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호텔&리조트가 완공되면, 28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5,816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지 개발 및 운영으로 직·간접적 고용유발 인원이 2,385명으로 지방 소도시 및 도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부족과 인구감소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지오그룹이 자은도에 '지오 국제문화관광타운'의 사업지로 선정된 이유는 전남·광주 지역의 향토기업으로써 우리 지역을 새롭고 의미있게 새겨보자는 지오그룹 회장의 철학이 반영되었기 때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 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객실이 수려한 석양 경관을 자랑하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또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관광산업의 인프라가 부족한 자은도의 현실정에 따라 사우나, 사계절 실내수영장, 대형 인피니티 풀, 키즈 존, 식음료 시설 등 각종 편의 시설을 빠짐없이 계획하여 모든 활동을 시설 내에서 윈스타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 리조트로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 호텔과 리조트의 실내의 인테리어, 디자인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협업이 한창이다. 라마다 호텔의 모던하면서도 품위있는 외관과 실내 인테리어는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이다.

1단계 라마다 프라자 자은 호텔&리조트 이어 2단계로 리조트 220실 추가 건립, 레저스포츠 시설(질라인, 마리나)과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장·공연장 등 부대시설을 2022년 7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지오그룹은 중국 예술대학(5개) 및 서안 청소년 예술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지난 6월 '제1회 국제 예술대학장배 교류전'이라는 사전 행사를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등지에서 개최하고 중국 12개 대학교 학장 및 교수진 37명, 국내 유수의 예술대학 교수진 30명이 예술 교류행사를 함께 하였다.

지오그룹은 광주전남권의 최초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주)지오산업개발과 부동산개발, 건축 전문기업으로 금성중인 지오종합건설(주)을 주축으로 생활과 주거를 넘어 관광과 문화의 공간을 창조하는 광주전남 향토기업이다.

올해 4월에 (주)지오그룹과 전라남도, 신안군은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심의와 착공에 필요한 각종 단 음향 및 영상시스템을 사용하여 국내외 다양한 규모의 행사에

강진군, 영농기술지원단 운영



간대에 맞춰 실시한다. 작목별 영농기술을 감안하여 쌀꾸리 등 맥류 파종, 마늘·양파 정식, 딸기·토마토 등 시설하우스 정식 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월 25일 부터 아침시간을 이용한 영농기술지원단을 운영해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농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농업인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갖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영농기술지원단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해오고 있다. 상반기는 4월부터 6월 농번기까지, 하반기는 10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식량작물, 원예, 축산 등 농업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간이 pH측정기, 당도계, 조도계, 현미경 등 진단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아울러 농가 상담과의견청취를 하고 있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하반기 영농기술지원은 11월 말까지 주2회 실시되며, 5명이 1조를 이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농업인들의 아침 영농시

특히 기술지원단은 농촌지도 경력이 많은 분야별 전문 지도사와 읍면 담당소장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현장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작물이나 토양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기술센터 내에 분석 장비를 이용한 정밀 분석 후, 원인을 찾아 대처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어 효과가 높다.

지난 30일에는 강진읍 일원에서 딸기와 참다래를 재배하는 4곳의 농가를 방문하여 생육상황 점검하고 정식 후 포장관리, 병해충 방제 및 월동관리 요령에 대한 기술지도와 일부 생육불량 발생 포장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더불어 딸기재배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종농사이므로 재배농가들에 육묘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신나는 가을 소풍 다녀왔어요”

영암군 덕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월 26일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2019년 다문화가정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체험'을 추진하였다.

20명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참여한 이번 문화 체험은 지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인근 나주시 농업기술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국제농업박람회장을 견학하며 이루어졌다.

아이들은 즐겁게 하루 일정을 소화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알기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신나는 하루를 보냈다.

특히,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영농기술에 관심이 컸고, 농기계 VR체험과 드론조정도 체험해보고, 새로운 기술을 직접 경험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제5회 '전국마한문화역사발표대회' 수상

장흥고, 은상 수상

장흥고등학교 학생들이 국립 나주박물관에서 나주시가 주최한 제5회 전국 청소년마한문화역사탐구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장흥고 학생들은 마한의 역사를 주제로 자신들이 준비한 자료들을 프레젠테이션이나 역사 신문 등을 활용해 발표하며 숨겨진 마한의 역사를 복원하고자 노력했다.

예선을 거쳐 올라온 12개의 고등부 본선 팀 중 장흥고(3학년 김지연·김은우·방채현) 팀은



(지도교사 정제성) 마한인들의 삶을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창조하여 다채롭게 신문을 구성하고 열정적으로 발표하여 은상을 수상했다.

3학년 김지연 학생은 “우리지역과 관련된 역사가 없을까라는 고민 중에 마한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